축산악취 원인분석 대책·단속 병행

익산시, 단계별 악취저감 지원 정책 추진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를 억제하기 위해 축사 내 악취발생 단계별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축산악취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익산시 축산 농가는 1,268곳 724만여 사육두수로 전북지역 지자체 중 그 규모가 3번째에 달할 정도로 축산업이 양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축산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축산악취규제 관련법규는 갈수록 강화되어 축산업계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에 익산시는 올해부터 강력해지는 축산악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산악취계를 신설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지원 사업을 확대 하는 한편 악취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규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축산악취발생 원인을 농장 내 사양관리단계, 축사 내 사육단계, 가축분뇨 처리 등 3단계로 분석하여 단계별로 악취저감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1단계 농장 내 사양관리단계 악취저감 방안으로 축사 및 주변 특유의 냄새 발생 억제를 위한 미생물제재를 살포하고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가 자체 청소 등 자가 점검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2단계 냄새발생 억제를 위한 사육단계에서 축사내부에 악취저감제 및 축사외부로 확산하는 악취를 밀폐하여 처리하는 저감장치 등을 지원하며 3단계 가축분뇨 처리단계에서 고액분리시설 및 퇴·액비장을 밀폐하여 저감제 살포하는 시설 지원 등으로 악취발생 근원지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악취검사를 강화해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농가는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도 펼칠 예정이며 악취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비협조적인 축산농가는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악취저감은 행정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농가의 단계별 저감 노력을 통하여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 만족하는 친환경축산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 집중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당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김수흥 국회사무차장과 박선춘 농림위 전문위원 등 전북 출신 국회 주요 보직자와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설파하고 정부 목적예비비 추가 지원과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분야별 부처 건의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군산사랑 상품권 추가발행사업 180억원 ▲수제맥주·청주 특화거리 조성사업 15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억 ▲군산스마트물류센터 건립 58.4억원 등을 건의했다.

또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인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50억원 ▲태양광 발전성능 장기 모니터링 인프라시설구축 사업 10억원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 280억 ▲대형구조물의 설치 및 운송 지원 인프라구축사업 100억원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예타면제 사업인 ▲상용차 사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127.7억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25억 지원을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사업 5억원 ▲복합 스마트 그린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5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속 도시조성 사업 1.5억원을 건의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강임준 시장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하여 김관영, 채이배 의원을 비롯한 군산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청렴 공직문화 조성

부서별 대책보고회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9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 보고회를 갖고 고강도 청렴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익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의 시정목표 구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철웅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박철웅 부시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처럼 부서장들부터 청렴에 대한 인식과 솔선수범하는 자세에 따라 청렴도 향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1,500명의 직원이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추진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상의, "지엠 군산공장 매각 환영"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사진)는 엠에스오토텍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컨소시엄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협약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5월 폐쇄결정 이후에 10개월 만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매입해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가동하면 신규일자리가 500여개 만들어 질 전망이어서 침체된 군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제 공장의 새 주인을 만나고 다시 가동을 하는 희망의 봄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장을 매입하기로 한 컨소시엄과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 노동계가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한다면 군산지역의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 회생이 이루어지고 공장 재가동을 통한 파생 일자리도 많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엠에스오토텍과 컨소시엄의 군산투자를 환영하며 군산지역이 옛 명성을 되찾고 경제적으로 활력 넘치는 기업하기 좋은 군산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미세먼지 대책회의 개최

공기청정기 보급 등 지속 추진

익산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8개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익산시는 전라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맞춤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밀도 있는 행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가 비산먼지 41%, 생물성연소 21%, 도로이동오염원 18%, 비도로 이동오염원 11%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저감 방안을 추진하고 푸른익산 만들기와 노약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 4·4만세 100주년을 맞아

기념 마라톤대회 성료

100년 전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에 저항하고자 진행됐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익산 4·4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 30일 익산종합운동장과 익산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익산 4·4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익산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참가자 1,200여명을 포함하여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 4·4만세운동 퍼포먼스와 정헌율 익산시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의 대회사가 이어졌으며 익산종합운동장에서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전 9시 대회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마라톤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3개 코스(하프, 10㎞, 4.4㎞)로 진행되었으며 하프 코스는 200여명, 10㎞ 400여명, 4.4㎞ 6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레이스가 펼쳐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대회는 4·4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날의 함성을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의미가 있으며 가족과 친구, 동료와 함께 걷고 달리면서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대회로 기억에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종합운동장을 포함 17개 경기장에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도심 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 위해 빈틈없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는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말가족농장을 개장했다.

가족의 힐링공간… 익산시, 주말가족농장 개장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우리농산물 애용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주말가족농장이 지난 30일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말가족농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전자추첨을 통해 270가구를 선정하였고 1만3,899㎡ 부지에 1가구당 33㎡ 내외로 분양했다.

선정된 가구는 상추, 치커리, 가지, 고추 등 일년생 작물을 중심으로 직접 씨앗을 파종하고 재배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회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주말가족농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표찰과 씨앗을 제공하고 있다.

농사경험이 없는 회원들이 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다.

정기적인 농작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농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이은정(영등동)씨는 "주말가족농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작물을 키우는 즐거움과 아이와의 추억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